

#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6회)

## 제3편 천수대명(天授大命)

차례	
一. 성령의 삼단계	
1) 1단계 성령 <span> </span> : 불성령(행2:1-4)	
2) 2단계 성령 <span> </span> : 생수성령(요7:38)	
3) 3단계 성령 <span> </span> : 이슬성령(호14:5-6)	
二. 완성된 성령인 이슬은혜	
1) 감로는 만법귀일(萬法歸一)의 증표	
2) 감로 이슬성령은 완성된 성령	

3) 3단계 성령:이슬성령(호14:5-6)

UN군의 참전으로 전세는 역전이 되어 국군은 북쪽 압록강까지 진격해 갔다. 그래서 통일이 되는가 싶더니 돌연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밀려 다시 국군과 UN군은 후퇴를 하게 되었다.

이때 박태선님은 서둘러 피난간다고 간 것이 겨우 평택이었다. 그곳에서 피난하여 있던 중 하루는 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빨리 이곳을 피하라 라는 것이었다. 그 음식을 듣는 순간 급히 밖으로 나가 약 150미터쯤 달렸을까 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박태선님이 유(留)하던 집이 폭격으로 박살이 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박태선님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중에 평택생활을 계속하던 중 하루는 정말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다.

대낮인데 방안에 앉아 기도 중 (그분은 눈을 뜨고 기도하신다) 갑자기 집 천장 있는 쪽에서 환하게 광채를 발하면서 옥환(玉環)이 위아래로 두 개가 나타났다. 박태선님은 하도 이상해서 그 모습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옥환 위에서 안개 같기도 하고 이슬같기도 한 것이 쏟아져 내리면서 위의 옥환에 담기는 것이었다.

계속 뚝뚝 옥환에 담기던 이슬이 차고 넘쳐 흘러서 아래쪽 옥환에 담기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백주 대낮에 깨어 있는 상태에서 되어진 일이다.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이 현상은 계속되었다.

구역성경에 보면 스가라 선지자가 비몽사몽간에 계시를 보는데 감람나무와 두 금동대에서 금같은 기름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물어 보았다고 써어 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이니

까?’ 하고 물어보았다.(스4:12) 박태선님도 이와같은 입장이었다. 박태선님도 결국 하나님을 통하여 그 옥합에 계속 쏟아져 내리던 것이 호세아 14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슬같은 성령’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오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리다... 그 가지가 퍼져서 그 아름다운 것이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호14:5-6)

이와같은 해답을 받은 박태선님은 감사한 마음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오직 성령이라고 하면 ‘불같은 성령’ (1단계)만이 성령의 전부인줄로만 알고 있는 중에 박태선님을 통하여 ‘생수의 성령’ (2단계) ‘이슬의 성령’ (3단계)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또 직접 받으시니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6000년 동안 준비해 온 모든 것을(구세주 출현시키기 위한) 박태선님을 통하여 하나 하나 진행시키고 계셨다. 여기서 삼 단계 성령에 대하여 격양유록에 언급된 구절을 소개한다.

三旬九食三豐穀을 弓乙中에 찾아보세  
삼순구식삼풍곡 궁을중  
第一豐에 八人登天惡化爲善  
제일풍 팔인등천악화위선  
一概이요, 第二豐에 非雲眞雨心靈變化  
일곡 제이풍 비운진우심령변화  
二穀이요, 第三豐에 有眞眞雨  
이곡 제삼풍 유로진우  
脫劫重生 三穀이라 - 三豐論  
탈겁중생 삼곡 삼풍론

**해설** : 한달에 아홉번 먹는 삼풍의 곡식을 궁을 가운데서 찾아보세. 팔인(八人)의 합자는 불 화(火)이므로 제3풍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 같은 불같이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첫번째 곡식이요, 제2풍은 구름도 없는데 내리는 진리의 비가 심령을 변

화시키는 것이 두번째 곡식이다. 제3풍은 이슬이 있는 참비가 즉 감로가 탈겁시켜 거둬나게 하는 것이 세번째 곡식이다.

격양선생은 위와 같이 제1단계 불성령, 제2단계 생수 성령, 제3단계 감로 이슬성령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성경은 만나 또는 생명의 양식(요6장49절, 목2장17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곡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진리는 하나라는 것이다. 하나로 통하고 통일되는 것이다.

이슬같은 은혜를 받은 후의 박태선님의 몸에는 많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소변으로 계속 피를 쏟는 것이었다. 열흘 동안 계속 소변으로 피를 쏟았다. 박태선님은 처음에는 중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몸은 점점 더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고 몸에서는 백합꽃 향취가 진동하는 것이었다.

소변으로 피를 쏟는 것은 “피갈음”이라는 것으로 이슬은혜를 받으면서 몸속의 죄악의 피가 죽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것이다. 죄악의 피가 쏟아져 나오면 대신 하나님의 생명의 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러나 소변으로 피를 쏟아내면 날수록 몸은 더욱더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박태선님의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후부터 박태선님의 온 몸에서는 힘이 넘쳐나게 되었다.

이 이슬같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에 성공을 거두신 무기로 마귀를 박멸시키시는 최고의 완전한 완성된 성령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참 주인공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받아 이룬 삼단계의 성령이 아니면 다 가짜다. 진짜가 나오면 가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二. 완성된 성령인 이슬은혜**

1) 감로는 만법귀일(萬法歸一)의 증표

앞에서 밝혔듯이 화우로(火雨霧) 삼풍(三豐)은 삼단계 성령인데 격양유록 삼

풍론(三豐論)에는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다.

三旬九食三豐穀을 弓乙中에 찾아보세  
삼순구식삼풍곡 궁을중  
第一豐에 八人登天惡化爲善一概이요  
제일풍 팔인등천악화위선일곡  
第二豐에 非雲眞雨心靈變化二穀이요  
제이풍 비운진우심령변화이곡  
第三豐에 有眞眞雨脫劫重生三穀이라  
제삼풍 유로진우탈겁중생삼곡

“한 달에 아홉 번 먹는 삼풍의 곡식을 궁을 가운데서 찾아보세. 팔인(八人)의 합자는 불 화(火)이므로 제1풍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 같은 불같이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첫번째 곡식이요, 제2풍은 구름도 없는데 내리는 진리의 비가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 두번째 곡식이다. 제3풍은 이슬이 있는 참 비 즉 감로가 탈겁시켜 거둬나게 하는 것이 세번째 곡식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옛 성현 및 각 종교의 경전에 예언된 화우로(火雨霧) 삼풍(三豐)을 최초로 박태선님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면서 구세주 출현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셨다.

격양선생은 이 삼 단계 성령을 곡식(穀食)으로 표현했는데 성경에도 만나 또는 생명양식(요6:49, 목2:17)으로 표현되었다. “내 어머니 가지신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라는 찬송에도 생명 양식이 표현되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무슨 뜻인 줄 모르고 찬송하고 있으니 은혜 없는 찬송이 될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화우로(火雨霧) 삼풍(三豐)이 생명양식이다. 앞으로 구세주 출현하시어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때에는 썩을 양식이 아닌 생명양식을 먹으며 살게 된다.

박태선님이 받은 이슬 은혜는 인류 역사 최초의 은혜 체험이므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종교와 구도단체에서는 한결같이 이슬은혜인 감로에 대해서 말하여 왔지만 언제 어

떻게 되어질 지는 몰랐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다.

道德經(도덕경) 安寧品(안녕품)에는  
欲度生死苦면 當服甘露味니라  
욕도생사고 당복감로미  
“생사의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하거든 감로의 맛을 알고 마시는 데에 있다.”

불경 대반달반경5권에는  
死者名曰身壞命終 是處無所歸是甘露  
사자명왓신壞命終 시처무사즉시감로  
者是甘露者眞解脫  
자시감로자진해탈  
“죽는 자는 몸이 무너져 생명이 끝나는 것이니 이곳은 죽음이 없다. 즉 이것이 첫번째 곡식이요, 제2풍은 구름도 없는데 내리는 진리의 비가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 두번째 곡식이다. 제3풍은 이슬이 있는 참 비 즉 감로가 탈겁시켜 거둬나게 하는 것이 세번째 곡식이다.”

이상과 같이 도덕경과 불경에 적힌 감로를 박태선님은 받으신 것이다. 여러 종교 또는 구도단체의 사람들은 언제 이와 같은 감로를 체험할 수 있을까 막연히 기다리고 있던 중에 박태선님이 처음으로 이를 직접 받고 이루신 것이다. 사실 모든 종교인과 구도자들은 감로의 실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그저 경에 또는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으니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감로의 실체를 알지 못하니 감로란 부처님의 말씀 또는 경의 진리의 말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이슬 성령인 감로는 하나님께서 6000년간 극비리에 준비하시어 이룩한 완성된 성령으로써 인류의 구세주를 출현시키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그러므로 박태선님의 인류 최초의 감로 은혜 체험은 그 분을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를 출현시키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박태선님은 평범한 하녀의 사람이 아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늘의 사명자라는 점을 독자 들은 인식해야만 한다.

격양유록 聖運論(성운론)의 한 구절을

### 제25장 해설

저 광활한 우주와 우리의 삶의 터전 지구, 그리고 푸른 하늘, 산, 들, 바다, 여기에 온갖 생명체와 인간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또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인간의 존재는 어떤 뜻이 있는가?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생각해서 쇠뿔하여 소멸의 길을 걷고 있는 현상은 무슨 까닭일까?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한번쯤은 이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삶이 편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 데도 마음 한 구석에 사라지지 않는 공허함과 의문이 자리하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바로 우주의 탄생과 인간 자신의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해서일 것이다. 고로 인간은 자신 안의 낱알의 무지와 의문에 대하여 해소하고자 하는 본능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의 본능을 외면하고 망각하며 산다. 마치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생의 유일한 목적인 양 살뿐이다. 일생을 진리가 무엇인지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한 세상을 새벽이슬처럼 잠시 맺혔다가 사라지는 인생을 아무 두려움과 불안감 없이 받아들이며 산다. 이런 인생이 바로 무도(無道)한 인생이요, 금수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인은 이러한 무지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근본을 알고,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 올바른 삶의 방향을 설정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 장을 통하여 우주와 삼라만상과 인간의 기원을 이해하고, 왜 우주는 도를 깨치고 수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곰핍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도덕경 해설**

有物混成 先天地生(유물혼성 선천시생): 모든 것들이 혼재되어 이루어져 있었고, 하늘과 땅보다도 먼저 생겨났다

우주가 태동하기 전과 만물이 탄생하기 이전 상태를 묘사하려 한 것을 말하려 하고 있다.

寂兮 寥兮(적혜 예혜): 그것은 고요하고 비워 있는 것 같다

혼돈과 불안의 음양 세계 이전의 무극 세계로 하나의 이상 세계를 나타낸 것이다.

獨立不改 周行而不殆(독립불개 주행이불태): 홀로 있으면서 변함이 없었으며, 두루 운행하여도 위태함이 없었다

우주 탄생 이전의 세계는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천지, 하늘나라, 극락세계를 말한다. 거기에는 불안과 공포와 위태함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다.

可以爲天下母 吾不知其名(가이위천하모 오불지기명): 가히 천하의 모든 존재의 어머니와 같으나 나는 그것의 이름을 알 수가 없다

우주 탄생 이전의 세계로 모든 존재의 시원이자 분향의 세계로 우주를 낳은 어머니와 같다는 것이다.

字之曰道 強爲之名曰大(자지왓도 강위지명왓대): 그것을 도라 칭하고, 억지로 이름 한다면 ‘큰’이라 할 수 있

# 道法自然

## 도 법 자연



것다

노자는 그것을 억지로 이름을 붙이지면, 도라고 한 것이며, 모든 존재의 근본을 내포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었는가. 그래서 이름하여 크다고 하는 것이다.

大曰逝 逝曰遠(連) (連)曰反(대왓서왓원원반): 이 큰 것 곧끝이 뻗어 나가는 것이고, 뻗어 나간다는 것은 무한하다고 하는 것이며, 무한하다는 것은 연이여져 있다는 것이고, 이어져 있다는 것은 곧, 그 근본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이른다

이 큰 것은 우주와 만물과 인간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된 세계의 이름이며, 즉 영원무궁한 세계(신천지, 하늘나라, 극락세계, 하나님, 부처님)를 말한다.

故道大 天大 地大 王亦大(고도대 천대 지대 왕역대): 고로 도는 크며, 하늘도 크다는 것이고, 땅도 크다는 것이고, 사람의 왕도 크다는 것이다

그런 고로 도와 큰 것 같으며, 하늘과 땅도, 인간도 다 이 도(범)에서 비롯된 것이다.

域中有四大 而人居其一焉(역중유사대 이왕거기일인): 세상에 네 가지 큰 것이 있으니, 사람의 왕도 그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와, 이 도를 본받아 본래의 도로 되돌아가는 것이 이 우주의 법칙이자 원리인 것이다.

道法自然(도법자연): 도법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니라

우주와 만물과 인간의 근본이 다 도에서 난 것이니, 다시 본래의 도로 원시반본하는 것이 우주 운행 원리와 법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것을 하나로 보고, 내 몸처럼 내 생명처럼 여기는 사상과 실천을 온전히 행하게 될 때에 완전한 이상 세계(신천지, 하늘나라, 극락세계, 하나님, 부처님)로 회복되어 기쁨과 행복 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원무궁토록 사는 존재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곧 도를 닦는 근본 목적인 것이다.\*

김주호 기자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b>승리신문</b>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